**청년녹색당 제3차 정기총회**

**1부 속기록**

* 일시 : 2015년 2월 7일 15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기록자 : 문지혜)

**오프닝 (15시 20분 시작)**

* 식순소개

**축사**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 상반기 탈핵 집중, 내년 총선 기획단 꾸려서 선거 준비 예정. 12월 이전에 다음 총선 후보를 뽑고 준비 예정임. 이번에 선출될 운영위원들은 함께 총선을 준비할 것이고 직접적인 청년정치를 위해 녹색당의 방향에 대한 준비 등이 필요할 것임. 다음 총선에서 녹색당이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람.

노동당 한민호 대의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생적인 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월성 노후원전가동 중지, 김포 생태습지 골프장 건설 문제 등.. 환경에 대한 문제 녹색당이 해야 할 역할 다양함. 노동당과 서로 지적하는 것이 아닌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람.
* 정족수 37명 미달, 함께 대기, 질의응답
* 당원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참여 가능한가?

당권이 없을 뿐 세미나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 가능함. 하지만 당권이 없으므로 선거권은 없다.

**2014 사업 및 활동보고**

공동운영위원장 이환희

* 2014년 2월 16일 정기총회로 운영위원 구성
* 신입당원 환영 및 운영위원회의(LT)등 진행
* 3월 후쿠시마 3주기 시청앞 부스 행사 진행
* 청년 적록을 만나다 간담회 진행
* 지방에서 청년녹색당 모임 및 워크샵(홍성 풀무학교 학생들과) 진행
* 청년녹색당 캠프 진행 : 양주시청소년수련원
* 탈핵 꼴라주 작업 및 신촌도보캠페인
* 정족수 37명 충족될 때까지 안건 공유 진행 (15시 55분, 1명 미달)

**안건2 청년 녹색당 2015년 사업계획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안건 3 청년 녹색당 규약 수정의 건**

* **진달래, 이환희**
* 제4조 (당원)
* 제7조 (평등의 원칙)

당헌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수정

* 위임장 서면 혹은 전자서면으로 작성, 위임장의 비율 3/2 이하

, 출석인원이 전체 당원수의 1/30 이상 출석으로 수정

* 질문 및 의견
* 유세화(동작) : 소수자 관련 조항, 명시된.. 이라는 말을 넣은 의도가 있는가?

어떻게 농어촌지역 청년을 구분할 수 있는지 지역, 일 등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었다. 명시된 이라는 조항으로 논의의 창구가 하나로 일원화될 수 있다.

* 여린두발 : 청년녹색당의 활동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변화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조항을 넣게 되었고 작은 시군구에 살고 있는 사람을 농어촌이라고 하였다. 소수자를 규정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논의가 필요하다.
* 변규홍(마포) : 당원에 대한 언급, 여성.. 기존 정치로부터 소외된... 라는 표현이 있다. 당헌에 표시된 기존 정치로부터 소외된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소수자” 대신 당헌에 명시된 “기존 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떨까?
* 전형우 : 7조를 구체적으로 바꾸게 된 것은.. 적은 숫자지만 운영위원에 참여하거나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의도가 있었다.
* 진달래 : 모임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항 수정을 통해 10명이 되지 않아도 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조 :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를 “참석한다” 로

15조

참여라는 표현이 애매하므로 참석, 혹은 참석과 참관의 내용으로 바꾸게 되었다.

* 변규홍(마포) : 11조 제3항 3호에도 ‘참여’ 표현, 제12조 5항에도 ‘참여’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진달래 : 12조 5항의 ‘참여’는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같은 맥락이 아니다. 11조 제3항 3호 추가 수정하겠다.
* 여린두발 : 제 15조 3항 수정 건, 참관은 참석은 가능하지만 발언권이 없다. 개정될 때 발언권을 늘리기 위해 수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 참관을 참여로 바꾸는 것에 대해 수정하는 것을 건의한다.
* ( ) : 녹색당 당규 회의규정 [제 4장 발언 제 14조(발언신청과 허가)]에 보면 참관에 대해 “ 참관인은 참석자들의 의제에 관한 발언이 끝난 후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라는 규정이 있다. 참관으로 개정하게 되면, 이전에는 회의에 참여해서 의장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참관으로 개정한 후에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게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참관으로 할 때 전체 녹색당의 회칙에 적용돼서 시시비비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관으로 표현을 바꾼다면 이러한 권한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개정의도는 무엇인지? 운영위원회의 발제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진달래 : 권한의 차이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 참여라는 단어가 실제로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이다. 참관과 참여가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당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언권은 의장에게 신청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므로 전국 녹색당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는 일일 수 있다.
* ( ) :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 청년 녹색당 규약에 보면 청년녹색당 규약의 해석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그렇게 지나치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
* 김수민 : 11조 3항 의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개정안. 밑줄 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이 아니라 또 다른 개정안이다. 그러므로 위에 11조 긴급한 건의는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발의 해야 한다.
* 이도연 : 안건 자체는 하나하나가 별도의 안건이 아니라 규약자체가 하나의 안건이므로 이 안에서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수민 : 개정안이란 것이 일부 개정안이 있고 전부 개정안이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일부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부개정안으로 안건으로 올라와야 한다.
* 변규홍 : 11조 3항 관련 김수민 당원 제청한다. 11조 3항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은 다음 규약 개정 때 다루기를 바란다.
* 진달래 : 확인, 11조 3항은 다음에 진행하겠다.

**11조 제3항 3호 수정 다음 회의로 이월**

저희가 발의한 안건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안건이고 네 가지가 저희가 준비한 안건입니다. 식순 전에 안건 제안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 추가 안건 건의 :
* 총회 당권 추가

변규홍 : 청년녹색당 규약 제 9조 7항 4호에 따라 식순통과전 현장발의 형식을 빌려서 추가안건상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총회 당일 당권 추가 부여 논의의 건입니다. 2014년 9월에 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은 정당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탈당했다. 그 당시 당비를 20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면서 재입당 시 즉시 당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특례에 대해 사무처에 제안을 했다. 그러다 얼마전 병무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결과 산업기능요원은 정당활동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월 4일자로 재입당을 했다. 선관위에서 총회 당권 공지를 할 때에 1월 19일이 당권회복 시일이라고 들었고 전국 사무처에서 당권이 없다는 답변 들었다. 그런데 저는 당비를 한꺼번에 내면서 당권회복에 대한 특례를 부탁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와 선관위의 의견에 대해 총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저 혼자 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당원 중에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에 대해 한 번만 짚고 넘어가 줄 수는 없는가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추가안건 발의 제안을 하게 되었다.

23명 서면동의 얻어서 현장발의.

* 전형우 : 당권 회복하면 이번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지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혹시 배인영씨 건도 이야기하셨나요?
* 변규홍 : 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있다면, 그런 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이 논의가 될 때는 사례를 모아보고, 개별 건에 대해 논의를 해 보고, 개별로 당권부여 가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당권이라는 표현은 발언권이나 의결권 등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당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당권을 생각하고 말씀드린다.
* 진달래 : 당권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1월 19일을 기준으로 정족수를 산정했는데, 변규홍 당원은 지금까지 계속 당비를 낸 것으로 인정하고 당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건가요?
* 변규홍 : 네
* 박상준(마포) : 탈당을 할 때 미리 당비를 내고 전국사무처에 특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답변을 받았나?
* 변규홍 : 전국사무처에 그런 부탁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음을 확인, 명확히 기억에 남진 않지만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는 기억은 있다. 정확한 답변이 기억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다.
* 유세화 : 병무청에서 초기 답변이 없었다면 당원으로 충분히 활동했을 것이라고 보인다. 전국 사무처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당권지속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고이지선(사무처) : 절차상으로는 입당일을 기준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논의해서 당권회복에 대한 결정을 총회에서 내려도 될 것 같다.
* 진달래 :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안건 상정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 ( ) : 변규홍 당원에 대한 당권이야기를 먼저 할 것인가? 변규홍 당원의 당권여부에 따라 참여여부가 달라지지 않은가?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지, 다른 안건 다 처리하고 나서 처리하는지, 순서가 궁금하다.
* 김여원 : 안건이므로 개회하고 다뤄도 되지 않나?
* 전형우 : 일단 총회를 개최하고..이 건을 먼저 다루고 이 건에 대해 의결 후 결과에 따라 진행되면 되지 않을까?
* 박세영(남양주) : 이 건이 개별 건이 아니라 이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례로 만들 것인지 궁금하다
* 진달래 : 개별사례로 시작했는데, 혹시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고이지선 : 당권자의 기준은 선관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선관위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돼야한다. 이 건이 선례가 되겠지만 의무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 민철식 : 총회 개회선언 후 이 건을 첫 안건으로 하면 어떤가?
* 진달래 :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정족수 확인 : 37명, 총회 개회 (16시 47분)**

* 진달래 : 새로운 안건이 20명 이상 당원의 동의를 얻어 상정이 되었다. 당권에 대한 내용이므로 첫 안건으로 다루겠다.
* 배인영 : 2년 전 쯤부터 당원이 되었고 당권이 있는 줄 알고 운영위원현장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후원당원임을 일주일 전에 알았다. 이전에 다양한 모임에 참여했고, 당권을 회복하고자 한다.
* 진달래 : 이 자리에서 당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안건이므로 또 요청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 박상준 : 전국공동운영위원장 때 후원회원이라서 투표를 못했다. 청년녹색당의 경우 당권자 여부를 구분하는지 궁금하다.
* 진달래 : 전국 당에서 후원을 하지만 당 안에서의 권리행사에 제안을 받는다. 하지만 녹색당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따른다.
* 이환희 : 배인영 당원의 경우는 본인이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의결에 관계없을 것 같기는 한데..
* 유세화 : 규범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당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후원만 하기 위해 후원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례를 선례로 남겨두었다가 차후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규홍 당원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 ( ) : 차후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변규홍 당원의 건을 다루었으면 좋겠다.
* 전형우 : 왜 배인영 당원의 당권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운영위원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다른 당원 못지 않게 열심히 활동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봤을 때 부정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 실수로 인해 의지가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이 못 된다면 청년녹색당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 민철식 : 뭐든 실수라고 용납될 수는 없다.
* 변규홍 : 이 건은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건 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예외적인 자리를 한 차례 결정하고 차후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건으로 발의를 했다.
* 진달래 : 변규홍 당원에 대해 우선 다루고 차후 다루겠다. 표결진행.

**28명 찬성 (과반이상, 통과)**

* 진달래 : 배인영 당원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논의할 것이 있으신 분은 발언 부탁한다.
* 유세화 : 배인영님의 활동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규약의 적용에 대해 엄밀해야 한다. 홈페이지나 안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 ) : 이 안건이 우리의 논의 및 투표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 진달래 : 이 건 자체가 논의를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 논의를 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논의에 올리는 것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변규홍 : 특정 한 사람이 아니라 포괄 안건에 대한 상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론이 바람직한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당권회복에 대해 요청하면 토론 후에 무조건 투표에 부치는 것으로 제안했다.
* 유세화 : 당권을 가지고 말고는 규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 전형우 : 규칙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량이 커지면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년녹색당 특성상 재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 ) : 청년녹색당에 대해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인가? (1091명) 한 사람 한 사람 당원의 활동에 대해 증언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 규모의 조직에서는 미리 규약을 개정 한 후에 사례를 논의해야 한다. 이 자리에 있는 37명이 구성원의 전부라면 그렇게 활동에 대해 일일이 듣고 결정할 수 있겠지만, 1091명 규모의 조직에서, 이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당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전형우 : 바람직한 진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좀 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발휘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 진달래 : 배인영 당원이 일반당원이라고 생각한 정황이 있었나?
* 배인영 : 전국 당대표 선거 때 투표를 했었고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래서 당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고이지선 :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 할 수가 없다. 일주일 전 일반당원으로 바꾸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 상황에 대해 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당원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어떤가?
* 김수련(도봉) : 총회가 아니면 전체적인 대의가 없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활동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일반당원이라 전제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 이도연 : 녹색당 당규에 후원회원 권리에 선거권이 있다고 있다. 그러므로 후원당원은 피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있다.
* 변규홍 : 당권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투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인영 당원이 투표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당권자로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 ( ) : 청년 녹색당에 후원당원도 해당되나?
* 고이지선 : 선관위에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 후원당원은 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김수민 : 당직과 공직은 다르다. 당직 선거가 아닌, 공직후보 선출 시 후원당원도 참여 가능하다.

**배인영당원 구제 안건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 21명 동의**

**당권추가부여 20명 동의**

**배민영, 변규홍 당권회복**

**안건2 운영위원회 위임의건**

**논의 없음, 박수인준**

**안건1 활동보고**

**박수인준**

**안건3 규약개정안**

* 진달래 : 11조 2항, 공동운영위원장 선출방식.

추천되거나 자천한자, 총회 비밀투표 및 최다득표자, 결원 시 운영위원 중에서 넣음

* 이도연 : 운영위원장 결원 시 내용이라, 운영위원 결원 시 내용은 없다.
* 변규횽 : 전국운영위원인가 운영위원인가?
* 이환희 : 전국운영위원이다.
* 여린두발 :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녹색당. 전국단위보다 풀뿌리에 좀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조 2항 1호를 전국운영위원이 아니라 전국총회 및 청년모임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다.
* 이환희 : 총회에서 선출된 전국운영위원이다. 각 모임의 운영위원은 대표성이 떨어진다.
* 여린두발 : 풀뿌리가 중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정안을 제출한다**.
* 유세화 : 용어정의요청. 전국운영위원과 운영위원의 정의 구분 요청.
* 이환희 : 각 지역 및 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이룬 사람들이 운영위원이고 전국 당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거친 분이 전국운영위원이다. 각 모임에서 선출된 운영위원들은 총회에서 인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여린두발 : 청년녹색당의 정체성이 전국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한 것인가 학교나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자리가 아니더라도 향후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 진달래 : 11조 5항. 운영위원을 전국운영위원으로 **수정안 제출.**
* 진달래 : 12조, 전국위원 최소 4명, 비상대책위 운영 위해 수정 등. 운영위원 후보가 8명이 넘을 경우 찬성수가 많은 순서대로 또는 추첨 중에 찬성수가 많은 순서대로. 12조 5항 10명 이상의 청년모임을 18조에 규정된 청년모임으로 참조하는 방식으로. 청년모임의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서 운영위원이 되도록 명시.
* 유세화(동작) : 12조 4항, 표의 등가성 문제. 적부 중 적격이 8명 넘을 때 이것은 선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선을 다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적부를 판단하는 것과, 그 중 누가 더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 수정안 제출
* 전형우 : 1인 몇 표로 할지 등의 세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 진달래 : 1명당 8표를 갖는 것은 어떤가?
* 유세화 : 각 사람당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적부와 적격의 차이로 한번에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5명이 적격이라고 생각하면 5표를 행사하고 10명이 적격이라 생각하면 10표를 행사할 수 있는 등, 사람에 따라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 변규홍 : 기존에는 세부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오늘 이 논의를 하기엔 총회 시간이 짧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고 우선 남기길 바란다.
* ( ) : 동의한다. 이번 투표에 대해서는 8인이 초과한다면 적부 뿐 아니라 경선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 투표해주시기 바란다.
* 진달래 : 4호에 대한 세칙을 일부개정안으로 남겨서 진행하자. 수정안 제출
* 유세화 : 추첨을 통해 라는 조항을 넣길 바란다. 수정안 제출
* 여린두발 : 유세화 발언 지지한다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 , 전국사무처 상근자가 자동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닌 공개선발을 통해 3인

소수자모임, 10명이 넘지 않는 모임을 우대하는 내용

청년당원을 당원이라고 하겠다

전국위원과 청년위원을 한 사람이 함께 할 때 1표의 권리만 갖는다

* 변규홍 : 7조2항 때와 동일하게 17조에서도 참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 ( ) : 7조2항에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 진달래 : 장애인, 여성 등…. 내용에서 기존 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이라는 수정안이 나왔다.
* ( ) : 기존 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너무 애매하지 않나?
* 여린두발 : 7조 2항에 농어촌지역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수정안제출.
* 박상준 : 당헌에 기존정치에 소외된 사람들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소수자모임에 대해 판단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7조2항에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변규홍당원에 대한 내용에 동의한다.
* 이도연 : 18조 6항에서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를 운영위원회의로 바꾸길 바란다.
* 진달래 :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회의로 해석되는 것이다.
* 변규홍 : 부칙 같은 경우.. 뒤에 추가적으로 넣는 방식으로 진행돼서 개정할 때마다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진달래 : 수정하겠다.
* 박상준 : 15조 4항까지 있는 프린트, 15조5항 내용이 있다. 이것은 원래 있는 내용인가?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데 추가내용인가?
* 진달래 : 없었던 내용이다. 죄송하다. 밑줄이 안 그어진 상황.
* 유세화 : 15조 1항에 운영회의 공지 내용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길 바란다.
* ( ) : 이 경우 현재 안건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다음으로 이월해야 한다.
* 김수민 : 기술적인 실수 때문에 개정안 내용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 진달래 : 15조 5항도 개정안이다.
* ( ): 의사진행발언. 이견이 없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의결하고 이견이 있는 건을 건별로 의결했으면 한다.

의결 및 수정안 논의

7조2항

1-1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당헌에 명시된 기존 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1-2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농어촌지역 청년 등 당헌에 명시된 기존 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1-3 당헌에 따라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 ): 농어촌 지역 청년의 범위가 궁금하다.

여린두발 : 광역시나 대도시 지역 이외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농어촌 지역 청년의 우선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

김수련 : 당헌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헌에 따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1-3 당헌에 따라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수정안 제출

변규홍 :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안을 바꿀 수 있는지, 여러 수정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하다.

김수민 : 표결할 때 순서를 가장 후반에 의견부터 의결을 하고 모두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해 표결한다. 원안도 부결되면 개정 전 안으로 가는 것이다.

진달래 : 최종적으로 당헌에 따라 1-3 내용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농어촌지역 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

1-3 22명 찬성 가결

농어촌지역청년 4명찬성 부결

15조 3항 자율적참관

1 자율적참여로

( ): 청년녹색당에서 이야기하는 참여는 무슨 의미인가. 바꾸는 의미가 뭔가.

진달래 : 녹색당규약에 참여라고 적혀있어서 의결권 발언권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 내용이 전국위원회에서 청년녹색당의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움 있었음. 참관과 참석이 애매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여라는 수정안이 나왔다.

2-1 참여 6명찬성 부결

원안대로

11조 5항 운영위원

1 전국위원

정족수 확인 38명 재석

3-1 22명 찬성 가결

제11조 2항 1호 당 총회 전국운영위원 당선자

1 당 총회 전국운영위원 당선자 및 청년모임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유세화 : 뒤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은가?

진달래 : 수정안 내용은 총회에서 처음에 선출할 때의 이야기고 뒤의 내용은 결원이 생겼을 시 보충에 대한 내용이다. 배치되지 않는다.

유세화 : 총회에서 나오는 운영위원은 적부투표를 거친 것이고, 청년모임에서 나오는 운영위원은 적부투표를 안거쳤다.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5명 찬성, 부결

원안대로

5-2 4호에 따라 세칙으로 정하도록 유보

1-1 3항 삭제 후 세칙으로 정한다고 유부, 세칙은 운영위원회에 권한 있음

1-2 추첨을 통해

유세화 : 지방에서 활동하거나 인지도가 없는 후보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1안을 제안.

전형우 : 추첨반대, 적부투표로 과반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선을 통해 걸러지지 않은 채 진행은 반대한다. 대의원의 경우는 추첨제에 동의하지만 운영위원회에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세화 : 경선을 할 경우, 서울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은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다.

박상준 : 전국운영위원과 운영위원회는 대의원과 비슷한 성격이므로 추첨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변규홍 : 전담 상근자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조직에 무리가 간다. 추첨을 통해 라는 내용이 포함될 때 기타세부사항 내용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추첨을 했는데 한 쪽 성별의 사람들만 당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남동수 원칙이 있다.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달래 : 세칙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 3항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냐의 문제이다.

1-2 12명 찬성 부결

1-1 11명 찬성 부결

원안대로

18조 3항

소수자모임 -> 모임, 가결

김수민 : 개정안의 가결된 부분, 원안에 대한 가결을 물어야 한다. 수정안들 부결에 대해 개정원안에 대한 의결 필요하다. 현안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개정원안 15조 3항.

23명 찬성, 가결

개정원안 11조 2항

22명 찬성, 가결

개정원안 12조 4항

9명 찬성, 부결 (기존대로)

남은 논의 안건 처리,

4조, 9조, 10조, 14조, 12조, 17조, 18조, 가결

* 유세화 : 12조에서 5항, 운영위원 중 1인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야 한다.
* 진달래 : 모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한명 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다.
* 이도연 : 각 모임으로 바꾸면 어던가? 수정안 발의, 가결

**안건4.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후보 현장등록에 관한 건**

**(기록자 변경 박상준)**

진달래: 선거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선거 관련 세부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했음. 사전후보 등록과 관련 청녹당에서 이의제기. 충분한 후보가 없는데 후보 등록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고, 입후보에 대한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의견. 당시 선관위의 의견은 등록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답신. 결국 연장하지 않기로 함. 이후 청녹당이 제차 이의 제기하였고, 선관위와 논의 결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현장등록을 받기로 함.

여린두발: 추가 수정안 의견. 지난번에 현장 추가등록 없지 않았나. 기존 후보들이 존중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 후보 5인에 대해서는 후보로 인정, 나머지 3인까지만 추가 등록을 받자

(사실은 지난 총회에서도 현장등록을 받았음)

진달래: 그렇다면 추가등록이 3인 이상이면 어떻게 하나?

전형우: 사전입후보자들의 인센티브는 선거운동기간이 있었고 홈페이지에 출마의 변이 있으므로 충분하다고 생각. 특별히 현장등록을 막을 이유가 없다

진달래: 정리발언. 이번 선거에서는 입후보자들이 얼굴을 알릴 기회가 충분하지는 않았음. 그래서 사실 사전후보등록의 의미가 퇴색되었음.

변규홍: 여린두발이 말한 제안에 의문. 찬반을 통해서 기존 후보 중 3명만 과반을 넘고 현장에서는 3명만 등록가능 하다면 전국운영위원회가 사전 등록한 5명의 후보 중 과반을 넘은 사람과 현장에서 등록한 3명 중 과반을 넘은 사람들로만 구성될 수도 있다.

(여린두발이 의견을 철회하기로 함. 원안 안건대로 함.)

유세화: 이것이 규약화 되는 것인가?

진달래: 아니다. 앞으로 세칙을 어떻게 할지를 규정하면 되지만 이것은 규약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앞으로 운영위원들과 당원들이 만들어갈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거의 전부 현장등록으로만 이루어졌음. 2차총회때만 사전등록 받았음.

의결 결과: 찬성 27 가결. > 총회 운영위원후보 현장등록 받음.

진달래: 입후보 신청자는 선관위에 문의.

고이지선: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종료시간을 정하고, 그전에는 돌아가지 않기로 합의하자.

진달래: 지금 입후보 할 사람들은 선관위 안준혁씨에게 등록바람.

전형우: 타인 추천 가능한가요?

진달래: 당사자와 합의 후 추천바람. 6시 35분에 재개하겠음.

**2부 속기록**

- 일시 : 2015년 2월 7일 18시 4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기록자 : 박상준)

**(전국운영위원 선거)**

김범일: 드디어 선거를 시작합니다. 청년녹색당 2015 운영위원선거 현장등록 지금 받습니다. 지금 하실 분?

김우빈(자천)

변규홍(출마의 변 준비해옴) (자천)

배인영(자천)

김범일: 오늘 입후보자 두 명이 집에 가셨어요.

이도연: 김여원 당원을 추천합니다.

김여원: 이도연 당원을 추천합니다.

진달래: 유세화 당연을 추천

유세화: 전형우 당원을 추천

전형우: 포기합니다.

김여원: 포기합니다

유세화: 포기합니다

이도연: 포기합니다

김여원: 포기 철회하겠습니다

이도연: 포기 철회

이도연: 문지혜 당원을 추천

문지혜: 포기합니다.

김범일: 더 없으시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유세화 당원 포기 철회

김범일: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우선 사전 입후보 한 후보들부터 ㅎ~ㄱ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송이 당원.

한송이: 서른 다섯이 얼마 남지 않았고 청녹당 할 기회가 업는데 후회하고 싶지 않다.

최지혜: 에리카라고 합니다. 청녹당에 처음 놀러 왔어요. 총회 힘들긴 한데 즐겁게 봤고 같이 잘 만들어가고 싶고, 배울 것도 많고 하니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신영수: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 당원입니다. 현장등록 때문에 9명이 됐는데 경쟁하는 게 싫어서 사퇴하려다가 앞의 두 분이 가셔서 남았다. 자기 아니라도 다른 분들도 다 잘 하실 것 같은데 되면 열심히 하겠다.

유세화: 여전히 고민 중이다. 만약에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 하면, 추첨제를 보완하고 싶다(웃음). 녹색정치학교 같은 걸 스터디나 독서모임 등으로 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도연: 작년에도 운영위원을 했는데 또 출마하게 되었다. 작년에는 지방에 살아서 핑계일수 있지만 열심히 활동을 못했는데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서 작년이 아쉬운 활동 보다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여 활동까지 하는 것이 부담이라 고민을 했지만 만약 된다면 학교별 지역별 모임이 늘어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싶다.

변규홍: 청녹당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게 작년 4월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알게 됨. 청년녹색당은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구조이다 보니 소속감이 약하다. 청녹당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함. 저 자신도 생태주의나 녹색 가치에 대해 잘 모른다. 함께 알아가는 사업을 해 보고 싶다. 청년녹색당원이 알면 좋은 것들을 같이 알아나가는 기회라던가, 민주주의 사상, 자기가 속해있는 지역공동체 등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잘 따르고 있는가 등을 같이 알아보는 사업이나 청년녹색당원끼리 더 편하게 잘 알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는데요, 안바쁜 사람이 없죠.

배인영: 사전등록 할 때 할 생각이 없었으나 기간이 지난 후에 개인의 일을 겪으면서 출마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왜냐면 청년들이 받는 부당대우들이 녹색당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청녹당에 어울리는 의제. 세미나 등을 조직하여 청년들이 자기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기 위해서 출마.

김우빈: 녹색당을 안지는 3년이 넘었다. 학생회활동을 하면서 청년의 문제는 청소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

김여원: 청녹운영위원으로 1년 활동 했다. 처음 발족할 때부터 청년녹색당의 역사를 목격해오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녹색당과 청녹당에 큰 확신이 생긴다. 더 즐겁게 정당활동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김범일: 규약개정보다 재미있죠. 투표를 할 텐데, 한번만 설명합니다. 각 후보 별로 찬성 또는 반대에 동그라미. 9명이 나왔는데 8명까지이므로 1명 탈락. 개표 시 9명 중 찬성 50%이하인 투표만 당선, 8명 중 9 모두 50%이상을 받으면, 상위 8명에 대해서만 순위대로 8명.

유세화: 그러면 8개만 찍으라고 해야 변별력이 있지 않나. 또는 아예 제한을 확 줄여버리면.

김범일: 오늘은 원래대로 가기로 하자. 그런데 꼴찌가 동점자가 나올 경우 둘에 대해서 다시 투표함. 당권자들은 투표 바랍니다.

(투표 진행)

김범일: 운영위원 선거가 끝나면 운영위원장 선거가 바로 이어집니다. 남녀 동수.

변규홍: 운영위원장 선거는 다시 출마의 변 등 하나?

김범일: 한다. (공동운영위원장 선거 안내.) 운영위원 중 자천 또는 타천으로 남1 여1 남녀 동수로 선출. 여러모로 진행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현 운영위원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규약 등을 현장에서 다 얘기하니까 논의가 길어지는데, 인터넷상에서 미리 의견 개진을 주시면 회의가 밀도 있게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미리 의견 교환을 해주시면 지체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까지 빠르게 하면 7시 반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진달래: 뒤풀이는 끝나고. 뒤풀이 이후에는 엠티가시고 싶으신 분들 레지던스로 이동하여 엠티.

김범일: 선관위 두 분만 선거를 하시면 끝납니다. 재투표가 안 나오길 바랍니다.

유세화: 비효율적이니까 8명이 다 찬성인 경우에는 일괄기록하자

김범일: 전자개표는 부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개표.

(개표 시작)

김범일: 일일이 호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선관위가 개표해서 정리, 발표하기로 하자.

(모두 동의함, 선관위가 직접 개표. 입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김수민, 전형우 당원 등이 개표 절차 참관)

김범일: 운영위원장 투표 용지 안내.

운영위원장 후보가 남녀 1명씩이면 용지에 찬반만 표시, 1명 이상이면 이름을 표기. 운영위원 재투표 시는 네모 칸 하나만 있음 이때는 재투표 후보 중 당선되었으면 하는 사람의 이름만 표시.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 개표 결과 공개키로 함.)

결과(무효표 없음)

(반대 수) (찬성 수)

한송이 1 35

최지혜 2 34

신영수 5 31

김우빈 2 34

변규홍 7 29

배인영 5 31

이도연 1 35

김여원 3 33

유세화 7 29

변규홍, 유세화 재투표 해야 함.

유세화: 보다 의지가 있는 변규홍 당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자진 사퇴함.

김범일: 유세화 당원이 자진사퇴 하였으므로 변규홍 당원이 자동 당선 되었음.

**(공동운영위원장 선거)**

운영위원장 자천, 타천 받습니다.

전형우: 김여원, 이도연 추천

(): 최지혜(에리카)

(): 한송이

이도연: 사퇴

김여원: 사퇴

유세화: 후보 번호는 남녀 나눠서 기재해 달라

한송이: 사퇴

(): 신영수 추천

변규홍: 자천

김우빈: 자천

이도연: 배인영 추천

전형우: 배인영 추천

김범일: 마감하겠습니다.

(여자 최지혜(에리카), 배인영. 남자 신영수, 변규홍, 김우빈)

김범일: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나온 순서대로.

최지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 드리고 당원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는 것 하나 믿고 후보 등록했다고 말씀 드렸고, 감사한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배인영: 짧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규홍: 제가 가장 잘 하는 것이 있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빈: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김범일: 뒷풀이 장소 안내. 부대찌개 관련 채식에 대한 의견 등. 메뉴에 대한 의견 수렴.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뉴가 부대찌개에서 중국집에서 바뀌었음을 공지. 채식 메뉴가 있으므로.

(투표 종료, 개표 시작)

김범일: 무사히 투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즉석에서 개표하겠습니다.

무효 1

여자

최지혜 14

배인영 15 (당선)

남자

신영수 14 (당선)

변규홍 7

김우빈 8

남자 공동운영위원장 당선자: 신영수

여자 공동운영위원장 당선자: 배인영

당선인사

배인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일: 책 나눔은 뒤풀이에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진촬영)

(폐회 및 정리)